<발간사>

[불기2553년도 대중결계록을 발간하며]

우리 종단에는 출가수행승가(出家修行僧伽)와 부종수교(扶宗樹敎)의 1700여 년 한국불교전통을 여법히 수행하는 일만육천여 스님들과 이 전통을 수희봉대(隨喜奉戴)하며 발심정진(發心精進)하는 이천만 신도대중들이 있습니다.

수행승가(修行僧伽)의 중흥을 위해서는 물신(物神)의 풍요 속에 고군분투하는 승가대중들의 자존(自存)과 정체(正體)를 실답게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나아가 자타(自他)가 상극(相剋)하고 경쟁(競爭)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불화(不和)와 분쟁(紛爭)의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국민과 지구촌중생들에게도, 화쟁(和諍)과 공생(共生)의 수승한 승가전통(僧伽傳統)을 회향(回向)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본분사(本分事) 입니다.

아주 다른 인간들이 더불어 화평하게 공주(共住)하는 공동체 즉 승가(僧伽, samgha)는 단연 인류가 전승해온 가장 탁월한 공화(共和)의 유산(遺産)입니다. 이는 대중공의를 여법하게 이행하여 화쟁(和諍)과 상생(相生)의 공동사회를 구현해나가는 독특한 전통으로서 인류사회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율장에 의해 기록되고 승가정통에도 전승된 결계와 갈마의 전통은 대중공의를 출생시키고 실현해가는 모든 과정에 어떠한 구성원도 배제되지 않게 배려하는 특별한 절차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대중이 스스로 공평(公平)한 권리(權利)와 자발적 의무(自發的義務)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한계(限界)를 정해 여법한 대중이 성립되게 하는 결계(結界)와 서로 합의약속(合議約束)한 학처(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설계포살(說戒布薩)은 화합승가(和合僧伽)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관건(關鍵)입니다. 이는 한국불교 수행승가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전통이며, 지금도 강원(講院), 선원(禪院), 총림(叢林) 등 여법(如法)한 대중승가(大衆僧伽)에서는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과 같이 승가구성원들의 대사회적 역할(役割)과 위상(位相)이 다양하게 분화(分化)된 현실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부득이 대중과 함께 공주(共住)의 경계(境界)를 벗어나 불안정(不安定)한 수행환경(修行環境)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소외되는 대중이 없는지 살피고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공동체를 성취해야 합니다.

수행대중 모두가 스스로 포살의 의무(義務)와 갈마의 권리(權利)를 이행하여 대중공의가 회복되면, 떳떳하고 실질의 힘을 가진 화합대중(和合大衆)은 반드시 성취(成就)될 것입니다. 종단중흥(宗團中興)의 주체는 '화합(和合)하는 대중(大衆)'입니다.

불법중흥(佛法中興)을 염원(念願)하는 모든 종도(宗徒)들의 원력(願力)을 실어 간절히 발원(發願)합니다.

불기 2554(2010)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